

“급락 후 회복 패턴 기대감”... 美 주식형 펀드에 ‘뭉치돈’

북미 펀드 180개 설정액 25.5조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4.4조 증가
“중장기적 ‘안정적 투자처’ 판단”
“韓 증시, 10년간 박스권 머물러”
韓·中 펀드 높은 수익률에도 하락



ChatGPT로 생성한 미국 증시에 돈이 유입되는 이미지.

미국주식형펀드로자산가들의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자산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크(PB) A씨는 “과거 고도성장을 경험한 60·70대 자산가는 성장이 점차 둔화하는 국내 경제와 격화하는 국내 정치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한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설정된 북미 주식형 펀드(180개)의 설정액은 총 25조 4989억원으로, 최근 3개월 동안 4조 4206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1040개)의 설정액은 1조 177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중국 펀드에서 24억원이 빠져나갔다. 또한 인도(1332억원), 베트남(369억원), 일본(252억원)에 투자하는 국내 설정 주

식형 펀드들도 모두 설정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와 중국 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북미 주식형 펀드는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개월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7.36%, 중국 펀드는 15.68%를 기록하며 북미 주식형 펀드(-6.67%)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다.

직접 투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99억7565만달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과 중국 증시의 반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머물렀던 반면 미국 시장은 급락 후 회복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 투자자

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며 “펀드 수익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펀드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많아 현재의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자금도 미국을 향한다. 지난해 KCGI자산운용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은퇴 준비를 위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할 때 선호하는 펀드 유형은 미국 위주의 해외주식형 펀드가 6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내 주식형 펀드 38%, 타깃데이트펀드(TDF) 28%, 채권형 펀드 14% 등의 순이었다. 미국 위주의 해외 주식형 펀드를 꼽은 응답자는 전년보다 4%포인트는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 응답자는 17%포인트 감소했다. KCGI자산운용은 “2023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키우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국가 중 하나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된 결과”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국거래소 밸류업 공시 시행 후 총 124곳, 4.9% 참여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말 밸류업 공시(기업가치제고 계획)가 시행된 이후 코스피에서 101개사, 코스닥 23개사 등 총 124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체 기업의 4.9% 수준이다.

시장별 공시 이행률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들은 전체의 11.9%가 참여했으며, 코스닥은 1.4%만 밸류업 공시를 진행했다. 밸류업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도 코스피는 45.3%, 코스닥은 2.5%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모습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채 중심의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교육·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특히, 조직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밸류업 공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밸류업 컨설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5월 중으로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과 함께 공시 우수사례와 주요 특징이 포함된 백서를 발간해 더 많은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외국인 ‘사자’... 삼성전자, 5개월 만에 ‘6만전자’ 회복

外人, 이달 8824억 가량 순매수
2.91%오른 6만200원 거래 마감



/삼성전자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6만원 고지’를 5개월여 만에 다시 밟았다.

20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91%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가 기준으로 6만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15일(6만 1000원)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의 ‘사자’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8824억원가량 순매수하며 국내 종목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

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메모리 산업은 레거시 반등 기대감 형성의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적 반등까지 이어진다고 확신하기에는 이

른 구간이라 판단하지만 주가가 12월 예상 주가수익비율(PE) 1.0배로 밴드 최하단에 있어 주가 하락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HBM)보다 낸드(NAND), 일반 DDR5 등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4년 만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호조와 폴더블폰의 인기 덕분이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6129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전

분기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가 판매량 증가에 기여한 가운데 특히 고가 모델인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46%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원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연간 판매량은 3800만대로 전작인 갤럭시 S24 판매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며 추가로 2분기에 슬림 모델인 S25 엣지가 출시돼 연간 판매량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반기에 출시되는 폴더블폰의 판매 증가에도 주목했다.

박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2억3200만대 수준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키움증권 장애인의 날 맞아 내달 19일 ‘키움런’

키움증권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단축마라톤 대회를 연다.

키움증권은 다음달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 ‘2025 키움런’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단법인 ‘무의’가 개최하고, 키움증권은 메인 후원사로서 행사 비용을 부담한다.

이달 20일부터 키움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025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2만 5000원이다. 키움증권은 참가비와 동액으로 추가 기부한다. 참가비와 키움증권 측 추가 기부액은 전액 무의에 기부돼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에 쓰인다.

러닝 코스는 5km와 10km 두 가지다.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 메달을 수여한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러너를 고려한 공간과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유사시 이송할 수 있는 휠체어탑승가능 차량,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 가능한 탈의실, 발달장애인 심신안정실 등을 운영한다. /원관희 기자

“웹툰·MBTI 활용, 2030세대 투자이해 도와요”

키움증권, 웹툰 기업분석 ‘리포툰’
토스증권, 분석자료 AI 음성서비스
KB·상상인증권, MBTI 활용 설계

(카툰)의 영문을 합성한 말이다.

키움증권은 “기존 증권사 리포트가 텍스트 중심으로 투자 전문 용어가 많아 투자자들이 어렵게 느낄 것이라 판단해 이 같은 웹툰 형식의 리포트를 기획했다”고 했다. 리포툰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애널리스트가 만화캐릭터로 등장해 개별 기업들의 특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토리 내에서 애널리스트의 전문 분야와 경력 등 프로필을 소개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는 읽는 것을 넘어 들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방대한 분량으로 발행되는 조사분석자료(건당 약 50p)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했다”며 “음성 콘텐츠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으로, 듣는 것이 더 편한 유저들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MPTI 투자 유형’을 자체적으로 설계해 개인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MPTI는 ‘마블론 콘텐츠 선호 지표(M-able contents Preference Type Indicator)’의 약자로, KB증권 앱을 통해 접한 콘텐츠를 토대로 16개 성향을 분류했다. 하우

성 KB증권 디지털사업총괄본부장은 “고객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기존 설문 방식보다는 고객의 공감대 형성을 높이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증권도 ‘MBTI별 리포트’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을 MBTI 성격 유형과 어울리도록 16개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상상인증권 관계자는 “주린이들이 더 선호할 만한 콘텐츠로 제작했고, 객관적이고 쉽게 종목에 접근하되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맷”이라며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등 일반 기관의 매니저들이나 기관장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범용화된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